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8권 제1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0. Vol. 8, No. 1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견해 -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

송민옥*, 이성자, 김훈주*****

*경남정보대학 작업치료과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업치료실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외래강사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치료지원서비스의 인식, 목적, 특징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치료지원서비스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료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평균 4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녹취되었다.

결과 :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였고, 치료영역의 전문가가 치료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료실의 시설 및 교재교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질적으로 높은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든 연구대상자는 무상교육을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으로 꼽았다.

결론 : 작업치료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 전문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 및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서비스, 작업치료

Ⅰ. 서 론

최근 특수교육대상아동들의 중증·중복화와 이와 관련된 교원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인해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적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관련 정보와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지원활동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치료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특수교육과의 개념적 혼란을 발생시켰던 치료교육보다 의료·재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진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았고 보다 전문적인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세연과 김지연, 2010; 송영준, 김영태, 육주혜, 이병인, 2007).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2009년에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이나 2010년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신저자: 송민옥 (minogi@hanmail.net)
접수일: 2010. 08. 10 || 심사일: (1차: 2010. 08. 27 / 2차: 2010. 09. 03) || 게재확정일: 2010. 09. 05

2008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치료교육활동' 이 사라지고 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생겨난 것이다.「특수교육진흥법」에서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 · 언어치료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보행훈련 ·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규정한 반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이전에는 치료교사 1명이 8가지 영역을 통합적인 시선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하여 교육하였다면, 현재는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치료지원서비스는 교육과정이 아닌 관련서비스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중 치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게 실시된다. 또한,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치료지원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치료교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으로 규정하여 치료지원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치료지원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경감,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치료교육과 치료지원서비스는 개념부터 다르며, 전문가 자격기준도 달라졌다.

치료지원서비스의 영역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지원서비스 영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윤종술, 2008; 장현숙, 2009), 진단 ·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치료지원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치료지원서비스는 치료지원대상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치료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목적, 특징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치료지원서비스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울산 A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 중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지원대상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한 보호자들은

표 1.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

	보호자 1	보호자 2	보호자 3	보호자 4	보호자5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35	40	42	41	43
학력	전문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직업	주부	주부	주부	주부	교사
자녀수	2명	1명	2명	2명	2명
아동연령	6세	9세	9세	13세	11세
장애유형	간질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1급	지체장애	간질장애
진단시기	24개월	5세	30개월	5개월	
현재까지 받은치료	없음	언어/감각통합/놀이/조기교육/물리/작업	언어/감각/인지/음악	물리/작업	없음

총 5명이었고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전달하여 인터뷰의 수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울산 A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통해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았으며, 주요 질문은 <표 2>와 같다.

연구의 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동년 7월 15일, 개별 면담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의 작업치료실 및 상담평가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시간은 3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렸으며 모든 내용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다. 면담자 외 2명의 연구원이 함께 녹취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질문 별로 보호자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1.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치료지원서비스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는 보호자(60%)가 알고 있지 않은 보호자(40%)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보호자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다.

표 2. 면담 주요 질문 내용

질문 내용
1. 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2.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및 목적
3.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4. 작업치료에 대한 보호자 생각
5. 다른 시설기관에서 받고 있는 치료 여부와 그 치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서비스와의 차이점
6.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
7.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
8. 치료지원 서비스에 바라는 점

표 3.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여부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여부 (100%, N=5)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다 (60%, n=3)
– 작년에는 잘 몰랐으나 인터넷을 보고 교육지원청을 찾아와서 팀장님과 상담하며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 장애친구들을 위한 치료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 치료비용을 지원해줘서 다른 장소에 가서 받거나 지금처럼 이런게 아닌가싶다.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모른다 (40%, n=2)
– 잘 모르겠다.
– 너무 생소했으며 의아했다.

2.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및 목적

인터넷이나 특수교사의 권유를 통해 치료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목적은 아동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 응답하였다.

3.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치료지원서비스의 영역 중 작업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소근육과 연관된 치료'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4. 작업치료에 대한 보호자 생각

보호자들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치료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가 생각하는 치료의 효과는 아동의 행동 변화나 치료사의 치료내용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다른 사설기관에서 받고 있는 치료 여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

60% 보호자가 사설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사설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

표 4.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및 목적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및 목적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음
– 특수교사의 권유
치료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대한 인식
– 작업/언어치료를 신청했는데 작업치료가 선택되었으며 소근육도 많이 둔하고 아이가 간질약을 복용하면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일반 아이들이 정규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는 이것(치료지원서비스)이 정규교육과 마찬가지이므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 한다.
– 우리아이에게 적당한 활동이 작업치료라고 생각해서 받게 되었고 아이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받고 있다.
– 글씨 쓰는 것이 목표인데 손동작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한 치료를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표 5.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100%, N=5)
작업치료에 대해 안다(60%, n=3)
– 소근육을 이용한 운동을 시켜주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물리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신체의 균형, 리듬, 손/발, 전체적인 리듬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소근육에 관련된 치료라고 생각한다.
작업치료에 대해 잘 모른다(40%, n=2)
– 잘 모르겠다.
– 목공이나 공예...그런게 아닌가 생각한다.

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교육비나 시설 및 치료사의 자질 면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타기관보다 우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 보호자는 사설기관에서 받고 있는 치료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는 치료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6.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

보호자들의 대부분은 사설기관에 비해 치료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7.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

모든 보호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치료지원서비스가 무료인 점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차량지원이 가능한 점, 다양한 교재교구의 구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또한 다른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8. 치료지원서비스에 바라는 점

치료지원서비스의 여러 치료영역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응답하였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료영역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아동을 위해 치료사와 특수교사의 연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6. 작업치료에 대한 보호자 생각

작업치료에 대한 보호자 인식
– 아직까진 잘 모르겠으나 아동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조금 티가 나나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집에서 색종이를 접거나 비행기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 많이 멀었지만 하긴 하네 싶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선생님들보다 적고 먼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좋다. 또한 작업치료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서 아동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좋았다. 아무도 그렇게 세세하게 지적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 너무 좋아서 잘 받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동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해줘서 그 단계에 맞춰 따라가고 있다.
– 치료사 선생님들은 치료의 질도 좋아 보이고 성실하게 잘 해주신다. 치료 결과는 작업치료를 통해 그네 등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다
– 치료를 받고 나온 후 몸이 부드러워지면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별로 안 좋으면 오늘 제대로 못했구나 싶다. 어릴 때는 무조건 좋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 조작하고 만드는데 많이 힘들어하니까 전반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아이도 재미있어 하고 점점 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아이에게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 좋은 것 같다.

표 7.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 지원서비스의 차별성

다른 사설기관에서 받고 있는 치료여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
사설기관에서의 치료 여부 (100%, n=5)
치료를 받는다.(60%, n=3)
– 언어/감각통합/놀이/조기교육
– 물리치료
– 미술치료
치료를 받지 않는다.(40%, n=2)
사설기관과 치료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
–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음악치료를 권유받아 사설센터를 찾아가봤으나 치료 시간당 4만원이나 되는 교육비와 센터와 집과의 거리도 상당하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받지 않고 있다. 치료지원서비스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고 또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좋은 것 같다.
– 다른 기관에서 언어치료, 감각통합, 놀이치료,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설과 비교해보면 여기(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생각이 든다.
– 일단 교육비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 한다.
– 사설에서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자체가 다르므로 서로 보완이 된다.
– 사설과 비교하여 교육지원청에서의 차이는 글씨 쓰는 것, 손동작이 나아지는 것, 자세 균형, 운동방법의 차이만 느껴지는 것 같다.
– 사설에서 미술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쪽(사설기관) 선생님들에게는 좀 더 예민해지고 아이에게 좀 더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며 매번 체크를 하게 되지만, 지원센터 선생님들 에게는 조금 자유스러워 지는 것 같다.

표 8.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
–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설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 곳 치료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치료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있다. 선생님의 세세한 지적들이 너무 좋았고, 아이의 자세, 균형, 원인들을 얘기해주셔서 학교 환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너무 좋았다.
– 너무 좋다.
– 사설기관에 비해 전문성도 좋은 것 같고,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이 좋다.
–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생각한다.
– 친구처럼 많이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해주는 환경을 통해 아이가 더 편안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표 9.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
– 교육비가 들지 않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차량지원이 이루어져서 편리하다.
– 교육비가 들지 않는다.
– 무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과 다양한 교구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치료비가 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과 특수교사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좋다.

표 10. 치료지원서비스에 바라는 점

치료지원서비스에 바라는 점
– 아직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아이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부분의 영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좀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치료를 다양하게.. 언어/음악/미술 등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치료실 선생님과 학교선생님과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아동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연계적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Ⅳ. 고 찰

2005년「특수교육진흥법」개정으로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학급 아동들에게 순회치료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특수학급 아동들의 치료교육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치료지원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아동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재학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정귀순, 2009).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료지원서비스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선별된 치료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구가 충분하게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면담, 전문 치료사 및 아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단 평가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치료지원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치료지원서비스의 실태에 관한 고찰

첫째,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치료지원서비스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는 보호자가 알고 있지 않은 보호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확하게 치료지원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치료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치료지원서비스 신청은 학교 공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공공기관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공교육에서의 치료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설기관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교육비가 가구당 월평균 50만원 이상 투자되고 있었다(구논회, 2005; 전병진과 이지연, 2006; 정영숙, 이상복, 정보인, 홍강의, 2001).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서비스는 무상으로 이루어짐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을 가져왔다. 무상서비스이지만 다양한 교재교구 및 치료도구들을 구비함으로 인해 높은 질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치료지원서비스는 순회 및 센터 방문 치료지원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치료지원서비스, 개인별 치료지원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이 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적용 단계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으나 이는 개별 인터뷰 과정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치료사가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인해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었던 것은 인터뷰 요청 시 녹취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았으며, 치료시간과 겹쳐 인터뷰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뷰 진행과정 중 아동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질적 연구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 좀 더 정제되고 질 높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V. 결 론

치료지원대상아동에게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치료지원대상아동의 보호자들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치료지원서비스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므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며 치료지원서비스의 제공 시 치료에 대한 정보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부모 모임을 통해 부모님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워크샵,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집-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둘째,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구 및 시설적인 면에서 만족하고 있었고, 치료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았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치료지원서비스는 교육과정 적용단계에 따라 학령기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순회치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및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도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좋은 시설을 활용한 기존에 받고 있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미술,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작업치료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 전문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사의 전문성 확보와 역할에 대한 세미나와 보수교육 제공 및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치료지원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설명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공포)*. 법률 제8483호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05.3.24.공포)*. 법률 제7395호

구논회. (2005). *특수교육진흥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교육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현장 요구 조사*

김세연, 김지연.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기반을 둔 학교작업치료 실태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3), 53-67

송영준, 김영태, 육주혜, 이병인. (2007).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요구조사 및 지원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윤종술. (2008). *치료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의 관계 정립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현숙. (2009).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실제.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과정 자료집*. 33-40

전병진, 이지연. (2006). 치료교육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의 욕구 조사에 관한 연구. *한작업치료학회지, 14*(1), 71-79

정귀순. (2009). *치료지원서비스의 실태와 향후방향*. 현장특수교육웹진 2009겨울호 http://field.knise.kr/jsp/field/2009-4/03.jsp

정영숙, 이상복, 정보인, 홍강의. (2001). 발달장애 아동의 장애유형과 치료교육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특수교육학 연구, 35*(4), 143-169.

Abstract

Parents Response for the Therap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 Centered on Parents of Occupational Therapy Support Service -

Song, Min-Ok*, M.S., O.T., Lee, Sung-Ja**, M.S., O.T.,
Kim, Hun-Ju***, M.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nam College University of Information & Technology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Kang-nam Ulsa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OT services) in the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The study is based upon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the OT services, measured by interviewing parents whose children have taken the services provided by Ulsan Kang-Nam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Methods : Five parents for the children having OT services since March, 2010 in the Kang-Nam Supporting Center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The interview per each person took thirty to fifty minutes and was all audio-recorded.

Results :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fication for the OT therapists working at the Kang-Nam Supporting Center was high. The quality for treatment facilities and the variety for treatment materials met the expectation for OT to be well-performed. The free OT treatment system was the one of significant features for the OT services provided by the Kang-Nam Supporting Center.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interviewed parents for the OT was very low.

Key words :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Therapy support services, Occupational therapy